

김호정 “신수원 감독 팬… 희망과 공감 느끼게 하는 힘 있어”

영화 ‘젊은이의 양지’서 불안한 어른 세연 역 열연
“경쟁 사회에 내던져진 청년, 기성세대 책임 있어”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며 우리 사회가 단절되고 냉정하고 고독하다는 것을 절실히 체감했어요. 두렵더라고요. 저 역시 자기중심적이었지만 ‘젊은이의 양지’를 찍으며 모두가 힘든 이 시대에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근 종로구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김호정은 영화 ‘젊은이의 양지’를 촬영한 후 본인의 인생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렇게 돌아봤다.

‘젊은이의 양지’는 카드 연체금을 받으러 갔다가 사라진 후 번사체로 발견된 실습생으로부터 매일 같이 날아오는 의문의 단서를 통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한다.

‘명왕성’ ‘마돈나’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한 신수원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 극한의 경쟁사회가 내몰린 현대인의 비극을 따라간다.

김호정은 2014년 개봉한 영화 ‘마돈나’를 통해 처음으로 신 감독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젊은이의 양지’ 최근 촬영을 마친 다음 작품까지 세 작품을 함께했다.

그는 사회적 문제를 짚어내 있게 풀어가는 신 감독의 연출 스타일에 신뢰감을 드러냈다.

“신 감독님 팬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를 리얼하게 담아내서 끌려요. 사회문제를 다루면서도 강요하지도 않고 또 감정을 끝까지 가져가지요. 너무 직적하거나 울음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내 모습과 닮아 있는 주인공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 희망과 공감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번 작품은 주로 젊은이들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청년, 기성세대 할 것 없이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모두 힘들잖아요. 작품을 보면 위로를 느낄 거예요. 남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지점도 있어 희망도 담았죠.”

극 중 그가 연기한 세연은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지만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콜센터 센터장이다.

어느 날 어린 콜센터 현장실습생 이준(윤찬영)이 사라지고 취업 준비를 하는 딸이 몰락해 가는 모습을 보며 심경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세연은 준이 콜센터 업무로 괴로워할 때 ‘월급은 그 알량한 자존심을 팔아서 받는 것’이라고 소리쳐요. 섬뜩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세연이 악한 인물로 묘사되는 것은 아니죠. 세연 역시 무한경쟁에 내몰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현대인 중 한명이예요.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아가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어른이죠. 준이를 비극적으로 만드는 역할이지만 악역이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가해자이면서 이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인 양면적인 면을 잘 녹이려고 했어요.”

차가운 경쟁 사회에 내던져진 현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다.

정하담, 윤찬영 등 어린 배우들과 연기하며 20대 처절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파리 목숨 직장인 세연을 연기하면서 기성세대의 피로감도 느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회조차 박탈당한 청년

세대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고 한다.

“우리 세대는 많이 누렸어요. 열심히만 하면 어느 정도 꿈을 이뤘는데 지금은 기회조차도 오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네요. 세연의 대사에서도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어요. 윤찬영 배우가 실제 19살 고3 때 촬영했는데 현장에서는 조금만 감정을 내색도 안하더라고요. 안쓰러웠어요. 왜 이렇게 현실을 다 감내할까 내색하지 않을까 슬펐어요.”

‘프랑스 여자’부터 ‘젊은이의 양지’까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작품에 연달아 출연한 것이 “힘들진 않냐고 묻자 ‘성취감이 크다’는 답이 돌아왔다.

“힘든 역할이나 작품을 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걸 하고 나면 해소되는 게 있어요.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을 끝내면 성취감이 더 커요. 뭔가를 해 낸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독립영화는 소재도 신선하고 주제도 깊어요. 작업할 때는 어려우려 힘들지만 하고 나면 의미가 더욱 큰 것 같아요.”

1991년 연극으로 데뷔한 김호정은 어느덧 올해로 연기 인생 30주년을 맞았다. 연기가 아직 힘들다는 그는 “삶을 작품에 녹일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20대 때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10년 열심히 하고 10년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작품을 조금 쉬었어요. 작품이 끝나고 오는 공허함 등으로 우울증을 겪으며 힘든 시기도 보냈어요. 연기를 꾸준히 하는 원동력을 묻는 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오는 삶을 맞닥뜨리면서 연기할 뿐이에요. 배우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자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데뷔 15주년’ 슈퍼주니어, 12월 정규 10집 발표한다

11개월 만 컴백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은 그룹 ‘슈퍼주니어’가 11개월 만에 컴백한다.

2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슈퍼주니어 전담 레이블 SJ에 따르면 슈퍼주니어는 오는 12월 정규 10집을 발표한다.

이번 앨범은 지난 1월 공개한 정규 9집 리패키지 ‘타임리스(TIMELESS)’ 이후 처음이다.

앨범 발매에 앞서 오는 11월 6일 오후 6시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새 앨범의 선공개 곡인 ‘우리에게’(The Melody)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컴백 예열에 나선다.

‘우리에게’는 그때, 그날을 회상하는 듯한 기분 좋은 ‘휘파람’ 소리가 인상적인 미디엄 템포의 곡이다.

또 슈퍼주니어는 데뷔 15주년 기념일 바로 다음날인 11월 7일 오후 5시부터 네이버 브이 라이브(V LIVE)를 통해 온라인 팬미팅 ‘비온드라이브 - 슈퍼 주니어 15th 애니버서리 스페셜 이벤트 (BeyondLIVE - SUPER JUNIOR 15th Anniversary Special Event - 초대(Invitation))’를 세계 유료 생중계한다.

해당 팬미팅은 슈퍼주니어의 역사를 돌아보



는 온라인 전시회와 토크 타임, 다양한 히트곡 무대로 이뤄진다. 티켓 예매는 27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브이 라이브와 예스24에서 가능하다.

지속♥이두희, 31일 결혼…“가족들과 비공개로”

모처에서 결혼식 진행할 예정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속과 프로그래머 이두희가 오는 31일 결혼한다.

지속의 소속사 스타엔터테인먼트는 26일 “지속이 오는 31일 모처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심스럽게 결혼 준비를 했으며, 식은 시국을 감안해 양가 가족 분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치뤄질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상 지속을 사랑해주시고 응원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

리며,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지속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올해 MBC 예능프로그램 ‘부러우면 지는거다’에 출연했고, 이 프로그램에서 깜짝 결혼 소식을 발표했다.

지속은 지난 2009년 ‘레인보우’로 데뷔했고 해체 이후 유튜브, 리포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왔다.

이두희는 서울대 출신 프로그래머로 지난 2013년 tvN 예능 ‘더 지니어스: 볼 브레이크’에 출연했다.



뉴스스

정해인, 사랑의열매 캠페인에 목소리 재능기부

출연료 전액 기부도

배우 정해인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방송사 JTBC가 함께하는 방송 캠페인 영상에 내레이션으로 참여했다고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지원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통해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정해인은 차기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

리즈 ‘D.P.’ 촬영과 JTBC 새 드라마 ‘실강화’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목소리 재능기부로 동참했다.

목소리 출연료 전액도 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

미혼모 긴급 구조 및 자립 지원 사업을 비롯해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 완화, 자살 위기 노인 정신건강, 폐플라스틱 재가공 시스템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등 5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번 캠페인은 이날부터 JTBC를 통해 공개된다.

KT, ‘인피니트 김성규’ 콘서트 글로벌 생중계

다양한 제작사와 손잡고 코로나 시대 비대면 콘서트를 기획해 선보이고 있는 KT가 내달 15일 인피니트 리더 김성규의 온라인 콘서트를 전 세계에 독점 생중계 한다.

KT는 유희엔터테인먼트와 공동 제작한 세 번째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 ‘김성규 콘서트 - The DAY’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과 10월 골든차일드, 러블리즈의 온라인 콘서트를 선보인 바 있다.

그룹 인피니트의 리더이자 메인 보컬로 2010년 데뷔한 김성규는 2012년부터 뮤지컬 ‘킹키부츠’, ‘아마테우스’, ‘광화문연가’ 등 다수의 작품에서 솔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군 전역 직후인 지난 2월에 열린 ‘사인-양코르’ 이후 9개월여만에 갖는 무대로 인피니트 팬들의 기대감을 불러모으고 있다.

김성규의 이번 무대는 KT의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Seozn(시즌)과 IPTV 서비스 율레 tv가 단독으로 제공하며, 해외 팬들에게는 제휴사인 MyMusicTaste(마이뮤직테이스트)의 ‘MMT 라이브’ 페이지를 통해 찾아간다.

국내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연 당일인 11월 15일까지 3만8500원(VAT 포함)에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예약 구매만 고객은 콘서트 생중계를 실시간 채팅 서비스와 함께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다.

12월 중순에 제공될 공연 실황 다시보기 서비스와 비하인드 영상(VOD)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직접 공연장에서 즐기지 못하는 아쉬움을 덜기 위해 콘서트 스페셜 티켓과 아티스트의 포토카드, 인비테이션 카드를 실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스페셜 패키지도 4만9500원(VAT 포함)에 구매할 수 있다.

KT 커스터머서비스본부장 김훈배 전무는 “무대의 열기는 그대로 가져오되 직접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K-POP 콘텐츠를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해 코로나19로 지친 팬들에게 위안과 재미를 줄 수 있도록 생생한 양방향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스